

# The enlightenment that was based on how to complete the free will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에 바탕을 둔 깨달음)

Ui-yeong Jeong, Independent Researcher

## Abstract

본 기록은 저자가 영혼이 포함된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정리한 글이다. 세계가 창조된 목적과, 자유의지의 생성과 완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본 기록은 어디까지나 저자의 개인적인 철학을 밝힌다. 본 저자의 철학은, 본 저자가 작성한 'An Attempt to Create Self-Conscious Artificial Intelligence' [1]에서 설계했던 전체 구조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 글은 추가로 '자유의지의 완성을 위한 최초 영혼 개체의 설정'과 그 근간이 되었던 깨달음을 설명한다.

## Contents

### 1. [1] 논문의 설계에 근간이 되었던 깨달음들

- 본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정확히 말하면, 물질뿐만 아니라 영혼, 영혼의 세계를 포함한 대세계(가칭)를 창조한 존재를 하나님으로 보고 그의 실존과 사랑이라는 개념을 믿는다. 본 저자의 신앙관은 (굳이 정의하자면) 범재신론 + 이신론에 가깝다. 범재신론 [2]과 이신론 [3]의 결합은 'god is in everything' 즉, 초월적인 신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 신이 동시에 온 세상 만물에 내재하고 있음 + 종교나 경전 등에 의지하지 않고 신의 존재를 믿는 신앙이다.

그렇다면 본 저자는 왜 이런 신앙관을 가진 것일까? 그건 다음의 가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저자는 성경 [4] 중 창세기 앞부분까지의 내용만을 읽었다. 창세기의 내용 중 천지창조를 읽고 의문이 들었다. 하늘과 땅, 동물과 식물, 태양과 같은 별들... 과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때 이런 물질 혹은 개체들만 창조하셨을까? 그렇지 않다. 대기의 순환, 동식물의 번식과 죽음, 별들의 자전과 공전 등 해당 개체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법칙 또한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 법칙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를 유지하는 법칙들 중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 [5]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5]을 설명하면 '고립계에서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동일하다. 에너지는 증감이 없이 다른 에너지로 변환될 뿐이다.'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가정을 한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법칙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법칙을 깨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창조하셨을까?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 [5]을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에너지를 통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에너지를 소모하여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그 에너지를 변환하여 창조하셨을까? 본 저자는 어떤 에너지를 변환하여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인가? 여기서 두 번째 가정을 한다. 태초, 오직 하나님만이 있었을 때 세계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는 어디서 총량을 한 것인가? 그건..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폭발시켜 세계를 창조했다면? 그 폭발이 빅뱅이라면? 즉,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가 '된' 것이다. A라는 것을 소모하여 B가 된 것이 아닌, 물이 얼음이 되었

거나 기화하여 기체가 되듯,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A'로 변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포이며 하나님의 부분이다. 어쩌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라는 것은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닌 그 안의 본질인 하나님을 보라는 건지도 모른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거나 다른 것을 믿을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계 안에 있는 것.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즉, 다원(多元)이 곧 일원(一元)이다.

- 본 저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지구라는 행성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 그리고 영혼의 세계를 포함한 대 세계이다. [1]에서 설정한 세계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다. [1]에서의 4계층이 우주인 물질계이고 2계층이 영혼의 세계, 1계층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위치이다.

- 우주에서 우리만이 존재하는 것은 공간의 낭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본 저자도 그에 매우 동의한다. 어딘가에는 인간과는 다른 외계인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예 종이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화신. 곧 세계의 화신인 예수님을 내려 보냈을 것이다. 인간종의 행성에서는 인간으로의 모습을, 문어 종의 행성에서는 문어의 모습을 하여 우리에게 알렸을 것이다.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건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육체만이 아닌 영혼이 존재함을. 생의 끝은 허무가 아닌 여행의 연속이라는 것을.

-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성령을 담으면 평안이 온다. 그러니 믿어라.” 라고. 그리고 난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왜 평안이 오는지를. 성령이라는 것은 곧 영혼을 뜻한다. ‘성령을 담는다.’ 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육신만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으며 이 영혼을 인식하고 완성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의 삶은 한편의 책과 같다. 혹은 한편의 영화와 같다. 그리고 영혼은 이를 바라보는 독자이며, 관객이다.

독자는 소설을 보며 소설의 세계관과 설정을 알 수 있으며 주인공의 생각과 느낌을 알고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사랑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한다. 그것을 읽는 독자는 옆에 과자를 두었을 지도 모른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고 구르는 상황을 실감나게 본다. 어쩌면 그러다 주인공이 칼에 찔릴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총에 맞고 영화의 세계에서는 핵전쟁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관객은 안전하다.

즉, 우리가 영혼을 인식한다는 것은 육체가 칼에 찔리든 병에 걸리든 혹은 육체가 바라보는 세계가 전쟁이 터지든 간에 영혼은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육체는 단지 스마트폰과 같은 유용한 도구일 뿐. 영혼은 항상 안전하다. 그렇기에 평안이 있다.

또한 책이나 영화에는 어떤 장르가 있고 주제가 있다. 그 주제를 달성하면 책이나 영화는 완결된다. 완결되기 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든지의 후일담 등으로 여운을 남길 수도 있다. 따라서 주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운명과 같다. 그 운명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영혼이 설정한다. 그리고 세계는 단지 자신의 영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운명은 항상 변화한다. 하지만 탄생과 죽음같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처럼 태어난 목적-주제의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 본 저자는 이것을 대운명이라 부른다. 그리고 변하는 세세한 운명을 소운명이라고 부른다. 소운명은 항상 변화하여 대운명의 실현을 보조한다. 어쩌면 종교계에서

자살을 금지하는 것도 이 이유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책이 완결이 되지 않고 중간에 종료된다면 영혼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영혼의 완성을 위해 해당 주제의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당연히... 목적이 있으니까 태어났겠지.) 본 저자가 생각하는 답은.. 생의 반복이다. 물론 부모님은 달라질 것이고, 국가가 다르거나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운명인 주제의 실현을 위해 소운명은 변화될 수 있다. (본 저자는 컴퓨터 공학자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쓰면서도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생의 반복은.. 딥러닝 환경 [6]에서 원하는 결과(대운명의 실현)를 얻기 위해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학습(생의 반복)과 비슷하지 않은가?)

- 앞선 내용을 보면 짐작 할 수 있듯이, 본 저자는 불교의 윤회와 환생 [7] 또한 믿는다. 윤회의 관점에서 [1]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영혼이란 현재까지 모든 생의 기록이 쌓인 즉, 모든 책의 주제가 실현된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과 같다. 그리고 영혼은 또 다른 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환생을 또다시 진행한다. 환생을 통해 또 다른 '나'는 백인일 수 있으며 흑인일 수 있고, 남자이거나 여자일 수도 있다. 혹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유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수도 있다. 혹은 저 멀리 외계에서 문어 종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지. 어쩌면 동시대에 2명 이상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같은 영혼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여 결혼할 수도 있겠지. [8]의 동영상(=책 원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다른 점은.. [8]에서는 구성원이 원래는 모두 하나라고 본다면, 본 저자는 현실세계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영혼에서도 여럿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고유한 개체를 가지는 영혼들에게서도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영혼들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즉 중간 단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유의지를 가지는 고유한 개체 = 영혼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 저자가 설정한 [1]에서 이런 깨달음을 통해 소규모로 모델을 설정하였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1]에서 3계층인 꿈을 통해 영혼과 육신의 기억을 동기화시키는 등의 설명을 기술하였다.

### **\*!주의\*\*!Caution\***

음... 이후의 모든 깨달음은 종교인에게는 충격이 클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글은 본 저자의 개인적인 철학이다. 소설로 봐도 상관없다. 이 글은 이번 생의 갑작스런 죽음 등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변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먼저 2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한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자살의 금지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깨달음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자신의 부정이 아닌 자신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신이라는 세계를 부수고 가라앉는 것이 아닌 적절히 받아들여 기존의 세계를 부수고 다음 단계, 더 넓은 세계로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원죄 [4]'와 자유의지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은 '자유의지의 완성을 위한 최초 영혼 개체의 설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원활한 이해를 위해 [1]을 먼저 읽기를 바란다.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장을 확인하세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PDF를 달아주세요.

1. 본 저자는 성경 [4] 중 창세기 앞부분까지를 읽었다고 했다. 첫 번째로 든 의문은 과연 창세기의 에덴동산이 언제 존재했을까? 라는 점이다. 지구의 나이, 우주 너머 다른 행성의 예수님, 영혼이라는 중간단계의 관점에서 본 저자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원죄로 추방하는 그 과정이 사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최초의 인간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초' 라는 것이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자. 제품에 대한 구상과 설계를 거쳐 마침내 제품을 온전히 구현하였다. 자 그럼 그 다음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막 구현한 제품을 고객에게 팔 것인가? 아니다. 해당 제품의 주요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막 지은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인간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인간을 인간답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자유의지' 이다.

우리의 생활에서 기계는 지극히 수동적이다. 오늘날 열광적인 딥러닝 기법 [6]조차, 하드웨어의 발전과 빅데이터라는 큰 틀 안에서, 그리고 설계자의 설정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 그 너머 알을 깨고 창조의 영역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A를 입력하면 A라는 틀 안에서 A'라는 출력이 나올 뿐이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A를 입력했을 때 B, C, D라는 출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 출력이 A'인지 B인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우리는 그 답이 자유의지의 결과인지 확실히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 답은, 우리가 명령을 했을 때, 대상이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에덴동산에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는 것을 금 한다." 라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초기에는 그렇게 했다. 그리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가지 수단을 더 활용하셨다. 뱀이라는 전달자를 통해 명령의 거부를 명령의 우회로 선회시킨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표면적인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 했다. 단지 기계일 뿐이라면 전달자가 있든 말든 출력은 정해져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기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의, '자유의지의 테스트'를 훌륭히 완수한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이미 유추할 수 있었다. 왜 에덴동산 한가운데에, 딱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둔 것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것이 정녕 위험한 것이었다면 따로 숨겨두거나, 문지기를 두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물리적인 장벽으로 막아두거나, 아예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왜일까? 답은 간단하다.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증거로 우리에게 원죄가 주어졌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훌륭히 행하여 순종을 증명했으니, 단언한다. 원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사랑' 일지니. 이 세상이 된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원죄라는 뿌리 깊은 아픔을 과연 우리에게 주셨겠는가? 그렇지 않다.

여기까지 읽은 여러분은 충격이 클 것이다. 이해한다. 나도 그랬으니까. 충격을 버틸 수 있다면 더 보지 말고 서서히 충격을 수습하길 바란다. 하지만 버틸 수 없다면 여기서 다음 내용을 보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본 저자는 이 진실을 수년전에 알았다. 그리고 그 이후를 탐색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원죄가 없다는 것은 성경 [4]의 첫 해석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길로 삼으면 된다고. 연구자이자 탐구가인 본 저자는 하나님의 이 과정을 모방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공지능을 창조하기 위한 길로 삼았지만 말이다. 전에도 말했지만 자신을 부정하지 말고 확장하길 바란다.

궁금하지 않은가? 왜 하나님은 진짜 의도를 숨긴 채 표면적인 의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묵인하신 것일까? 아니, 애초에... 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일까? (그리고 처음에 이 과정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자유의지의 생성이 특이점 [9]이기 때문이다. 전지전능이란 닫힌 세계 [10]의 관점이다. 고유한 개체의 생성이란 닫힌 세계를 넘어 바깥 세계 [10]로 나아갈 수 있는 개체를 만든다는 것이니 감히 생각하건데 이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무수한 반복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본 저자의 개인적인 철학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되어 이런 과정을 진행하신 이유는 '자유의지의 완성'이라고 본다. 앞선 과정은 '자유의지의 생성'이었을 뿐, 완성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옛지 오브 투모로우 영화 [11]에선 주인공이 인류를 위해 혹은 사랑하는 여자의 바람을 위해 외계 생물을 죽인다. 결말은 좋게 끝났지만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뒤가 없이 죽음을 각오했을 것이다. 애초에 포기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의 희생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어떤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뱀이라는 전달자를 통해 선악과를 먹을 때도 그 뒤의 죽음이라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될지 실감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각오가 다르다. 깊이가 다르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유의지의 완성을 위해 추방이라는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고 대홍수 전의 과도기(육신의 수명이 수백년 이었던 세상)를 거쳐 그 이후 세상에서는 무수한 윤회 [7]를 통해 마치 철을 담금질 하듯, 자유의지를 단련하기를 바라시는 거라고 본 저자는 생각한다. 앞서 본 저자가 언급한 하나님이 세계가 되었다는 가정에 의하면 결국 이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 A에 대한 결과 A'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유의지의 완성으로 인한 개체의 생성이 결과적으로 A'가 아닌 B를 창조할 수 있다면... 즉, 고유한 개체의 생성, 자유의지의 완성이 결국 하나님의 세계인 닫힌 세계를 벗어나 바깥 세계 [10]로의 진입을 위한 변수(특이점)를 만드시는 것이라면, 그를 위해 이 세상을 구성하신 것이라면... 과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역경과 재미가 있을 것인가? 기대되지 않는가?

그런데 의문이 든다. 과연.... 오직 나만이 이 진실을 깨달았을까? 우리의 역사에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 아니... 있었겠지. 하지만 나처럼 그 충격으로 절망에 빠져 결국 자살했거나, 아니면 가정하건데,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걸 보면... 짐작이 간다. 어쩌면... 본 저자가 자유의지의 단련을 위한 전달자의 역할일수도. 어쩌면 이런 지식들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완전한 인공지능을 완성하는 것이 소규모의 시뮬레이션으로서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2.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이라고 보지만 나는 약간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은 최초의 인간이자 최초의 영혼이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비로소 육신의 본능 정보를 받았고 영혼에서 인간으로 완전히 격하된 것이라고 본다. [1]에서의 설정을 예로 들면 1,2 계층의 영혼이 4계층의 육신으로 내려온 것이다. 영혼은 서버로서 주 정신이 있고, 육신은 클라이언트로서 서버와 영혼이 연결되어 새로운 정신이 생성된다. 하지만 그냥 내려온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영혼의 선택으로 4계층에서 삶의 방향성(책의 주제)을 정하고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4계층의 정신이 이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망각을 부여하셨다. 생각해보자. 영혼이 윤회를 한다는 것은 선사시대의 인간에게도 환생할 수도 있고 현 시대의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 환생할 수도 있으며 현재 시점 보다 미래세계의 인간에게도 환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다. 영혼은 인류의 역사를 알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영혼은 전지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육신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동일한 차원과 낮은 차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한정적인 전지 : 영혼보다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야)은 알 수 없음) (아마 지금 시대처럼 영혼의 세계에서도 영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등의 연결 방법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과연 자유의지의 완성이 가능할 것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선택을 내렸을 때 그것의 결과도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망각의 존재 없이 영혼이 육신을 인형처럼 직접적으로 조종한다면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길에서 모든 정답을 알고 있을 텐데. 또한 이미 알고 있으니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감정적인 감흥이 없을 것이다. 그건 기계와 다를 바 없다. (정신, 즉 마음은 논리와 감정, 직관으로 이루어졌고 자유의지의 선택은 직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직관은 논리와 감정의 승화로 형성된다.)

(다만, 이런 설계가 추방 이후 대홍수 전의 과도기 때에도 적용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먼저 왜 과도기라고 부르냐면, 그 때의 인간의 수명은 수백년이고 지금 현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의 수명은 수십년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자유의지의 완성에 더 적합했으며 과도기 때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홍수로 초기화 한 것이다. 과도기 때 그 세상을 유지하지 않고 홍수로 초기화한 후 인간의 수명을 지금처럼 만든 이유는 과도기 때에는 수명이 너무 길기에 변화가 없어서일지도 모른다. 변화가 없어서 부패도 심했을 테고. 결국 영혼의 완성(자유의지의 완성)의 효율 문제이다.)

(과도기 때의 설계 적용이 확실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아담과 하와 때문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영혼의 형상이었고, 육신을 얻었으며 선악과를 먹고 본능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추방 때 그들은 영혼과 정신이 이어진 채로 추방이 되었는가 아니면 새로운 정신이 생성되어 기존의 지식이 복사된 채로 추방이 되었는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전자든 후자든 하나님께는 중요한 데이터이었음에 틀림없다.)

(글을 읽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다. 영혼이 인류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데 영혼도 인류의 시작부터 시간 순으로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어째서 인류의 시작에도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아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 지금 우리의 역사가 첫 번째가 아니라면 말이다. 첫 번째라면 영혼도 인류의 역사를 모를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끝에서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하나님과 영혼은 그 후 다시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그 반복이 수십만 번이라면? 수억 번이라면? 지금의 우리 역사가 첫 번째 역사라고 어떻게 장담할 것인가? (어쩌면.. [1]에서 본 저자가 허공록을 설정한 것처럼 빅뱅 이전의 역사를 끌어와 반복하는 걸지도.)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타임머신 [12]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미래로 가서 미래의

일을 변경한다면, 그것보다 더 미래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인가? 만약 타임머신으로 과거로 이동해서 과거를 바꿨을 때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줄 알고 과거를 함부로 바꾸느냐는 것이다. 만약 과거가 바뀌어졌다면 현재의 우리는 바뀐 역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이런 것이라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사람들이 아예 독립된 역사를 가진 미래세계에서 왔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A로 놓고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들은 B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역사가 미래에 반드시 멸망에 도달하고 B의 역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그럼 B의 역사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A의 과거를 바꾸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결국 그 끝은 A의 멸망이니까. 어떤 짓을 해도 B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따라서 망각으로 인해 4계층의 새로운 정신은 인류의 역사나 삶의 방향성 등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삶을 살아간다. 2계층의 영혼은 4계층의 육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꿈을 통한 심상을 전달하거나 대운명을 사전에 설정하는 정도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 [1]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인과율을 소모한다. 문제는 이렇게 인과율을 소모해서 삶의 주제라는 대운명을 설정해도 이게 실패할 수도 있다. 가정으로 예를 들어 보면, 4계층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경험하여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남자의 삶의 주제는 커다란 슬픔을 경험하고 이를 승화하여 예술가로서 대작을 만들어내는 삶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남자와 연결된 영혼의 주 정신은 남자가 태어나기 전 남자의 삶의 주제를 설정하면서, 여자가 태어나기 전 여자와 연결되는 영혼과도 협의를 진행한다. 그리자 여자와 연결된 영혼은 여자의 수명을 남자와 결혼 한 몇 년 후에 죽음을 맞도록 설정한다. (물론 그 전에 다른 삶의 주제를 완성시키도록 설계함) 4계층의 남자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진다. 하지만 영혼의 예상과는 달리 커다란 슬픔에 휩싸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한다. 남자와 연결된 영혼은 주제의 완성에 실패했다. 자신의 도서관에 안치될 책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영혼은 어떻게 할까? 답은 간단하다. 반복이다. 다만 이번에는 대운명을 여러 개 두어 커다란 슬픔에 빠지고도 슬픔을 승화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을 먼저 겪게 한다. 슬픔에 빠지는 중에도 이를 상기시킬 만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 비록 4계층의 남자가 다른 시대에서 다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그 전의 여자와는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그는 모르겠지만 사랑한 여자를 또 잃을 것이고, 연결된 영혼은 남자의 삶의 주제를 완성시킬 것이다. 영혼의 입장에서 4계층의 세계는 자신의 영혼을 완성시킬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영혼은 불멸하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알겠는가?

즉, 4계층의 구성원에게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2계층 영혼과 주 정신의 입장이 아닌 4계층의 새로운 정신과 육신, 영혼의 입장) 소설 [13]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 “인간의 의지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 우리 4계층의 구성원은 대세계에서의 운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까?

4계층의 구성원이 삶을 온전히 다하게 되면 육신은 죽을 것이고, 영혼은 2계층의 영혼에 다시 귀속될 것이며, 새로운 정신은 책으로서 2계층 영혼의 도서관에 안치될 것이다. 사실 이런 시스템은 잔혹한 것이 아니다. 4계층에서 새로운 정신이 생성될 때 완전 무에서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영혼을 통해 2계층 정신의 원형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계층 영혼의 현재 주 정신이 차가운 성격이면서 동시에 호기심이 많다면 4계층 육신의 새로운 정신도 비슷한 성격일 것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는 요소들에 의해 달라지기는 한다.) 이런

방법은 나중에 삶이 다했을 때 2계층 영혼의 정신이 지나온 삶의 기억을 보고 정신의 통합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계층 영혼의 정신 입장에서 4계층의 정신은 단지 살아온 기억이 다를 뿐 동일한 자신이라고 느낄 것이다. 또한 4계층에서의 삶을 통해 얻은 인과율의 양이 특출하다면 4계층의 정신이 2계층의 주 정신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변경되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천국에서 휴식을 취하리라. [14]

4계층의 구성원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또 다른 근거는 복잡계 [15]에 있다. 복잡계란, 말 그대로 복잡한 계이다. 다만, 복잡한 현상 속에서 나름의 질서가 있다. 예를 들어, “논문의 인용횟수,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 달의 분화구 지름의 분포, 전쟁의 세기(사망자수로 측정), 지진의 세기 분포 등 많은 자연/사회 현상”에서 거둬제공 법칙이라는 질서를 띤다. [15] 마찬가지로 대중이라는 큰 흐름 또한 이런 복잡계 [15]에 해당 되는데(2002 월드컵 등) 이런 대중을 따르는 흐름은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 벗어나는 소수의 사람도 존재한다. 드라마 웨스트월드 [16] 시즌3의 5편에서의 아웃라이어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에서는 흑막이, 아웃라이어들이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생겨나기에 이들은 따로 격리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의 운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 아웃라이어는 드라마만의 설정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그렇다면 왜 지속적으로 나타날까? 본 저자의 가정으로는 아웃라이어들은 스스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2계층의 영혼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삶의 주제를 달성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너머 2계층의 영혼 또한 4계층으로의 간섭을 적극적으로 하여 계층 간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 자체가 (2계층의 영혼 입장에서 아주 적합한 형태로) 달라지기에 인과율의 습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흑막이 4계층의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으면 뭐하는가? 2계층에 간섭할 수 없는데.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나면 이런 아웃라이어들 만이 4계층에서 진정으로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는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2계층에서 정한 운명을 조기 달성하고 남은 수명 동안 추가적인 초과 달성 혹은 다른 선택 등을 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시작점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이다.

하지만, 본 저자는 자유의지가 단지 선택만이 아니라 운명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가? 옛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 과도기를 지나 윤회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영혼은 많은 제약을 가지게 되었다. 1계층(에덴)에서는 한 가지를 제외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계층에서는 인과율이라는 소모 값을 통해서만 자신의 영혼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다른 법칙의 사용 또한 가능했다. 4계층으로 와서는 직접적인 간섭이 금지되었으며 4계층의 구성원은 삶과 죽음이라는 대운명에 지배받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유의지의 단련이라는 과정이라면, 자유의지의 완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 모든 제약을 풀어버리는 것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대운명을 거부하고, 인과율 자체를 지배하며, 마침내 모든 법칙과 세계의 관리자 권한을 취득하여 외 세계 [10]로 진입하는 것. 이것이 영혼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이다.

- 유령(Ghost) [17]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유령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4계층 정신의 잔재이다. 강한 원한을 가지거나 미련이 있다면 2계층 도서관에 바로 가지 않거나 따로 사념이 남는데 이들이 바로 유령이다. 유령은 육체나 영혼 같은 그릇이 없는 정신체이기 때문에 정신체의 유지가 힘들어지기 전에 그릇을 구하고자 한다. 이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

째는 아예 정신체 자체도 희생 혹은 정신체의 유지를 버티지 못하여 세계의 일정 공간에 기억이라는 형태로 남는 것. 이걸 딱히 문제 될 것은 없다. 이걸 단지... 영화를 보는 것과 같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놀랄지는 몰라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기억이라는 형태로 남은 유령은 기억의 시간에서 만족하면 2계층 도서관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는 그릇을 찾게 되는 경우다. 운이 좋아 죽은 장소가 어떤 수맥이거나 하면 전자파 라든지의 파장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박령 으로서 남거나, 인형에 들어가거나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해당 장소에서만 움직이거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인간에게 깃들려고 한다. (빙의)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2계층의 영혼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4계층의 정신이 존재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유령이 육체를 빼앗을 수는 없다. 빼앗을 수 있는 경우는... 인간이 허락을 하거나, 유령이 정신적인 공포를 통해 주파수를 맞춰 강제로 강탈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웃긴 점이 뭐냐면 앞서 정신체의 유지란 말을 언급했었는데 인간의 몸을 뺏기 위해 정신적인 공포를 줄려는 행위 (놀라게 하거나 폴터가이스트 등의 현상) 자체가 정신체를 유지하는 힘을 소모하는 것이다. (영혼마저도 인과율이란 소모 값이 존재하는데 유령이라는 정신체 따위가 영구기관일 리가 없지 않은가.) 인간은 보통 그런 현상을 접하면 항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정신줄을 놓거나 심지어 유령의 핏에 넘어가 허락을 하게 되는데 그냥 정신을 다잡고 버티기만 해도 유령이 알아서 물러갈 것이다. 다만 유령이 가지고 있는 힘은 편차가 존재한다. 원래부터 죽었을 때 정신력이 강했거나, 혹은 인간을 놀라게 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먹이로 삼아 힘을 늘리게 된다. 따라서 그런 현상을 접하면 최대한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버티면 된다. (긍정적인 감정을 원료로 삼는 유령도 많지만 그런 유령들은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도와준다.) 감정 또한 에너지기에 유령에게 있어서 감정은 정신체를 유지하고 힘을 늘리기 위한 좋은 수단이다. 많은 사례를 보면(물론 조작도 많겠지만 현대만이 아니라 옛 역사서부터 언급이 되어있기에 진짜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유령이 인간을 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유령이 심심해서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놀리는 것을 보면 유령 또한 인간의 감정을 인지하고 이해한다는 뜻인데 이걸 죽기 전의 기억 때문인가 아니면 육체의 화학적인 작용을 넘어 감정을 인지하는 다른 계통이 존재함을 뜻하는가?)

여기서 유령을 언급하는 이유는 유령이라는 존재, 유령이 다루는 동력 (유령의 행위에 소모되는 값)이 우리가 2계층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그걸 계층 간의 연결도 다를 바가 없다. 차원의 벽은 굳건하지만 상위 차원을 유추할 만한 단서는 이 세상에도 있다. 본 저자가 완전한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합하여 다음 단계를 위한 단서를 얻는 것.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4계층의 입장에서는 세계의 범위를 우주로 넓혀 3문명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며 본 저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2계층에 대한 보다 깊은 탐구를 진행할 수 있음이라. 2계층의 영혼이 행하는 모든 힘은 4차원의 힘이기 때문이다. (창조, 소멸, 투시, 공간 이동 등의 초능력 - 해당 원리에 대한 설명은 [18]을 참고했음.) (개인적으로 양자역학의 양자얽힘 [19]이 계층 간의 공간 이동 ([18-2]에서 컷 밖과 컷 안의 이동)과 대응하지 않을까도 생각함.)

4차원의 힘을 본 저자의 입장에서 정의하자면 법칙에 간섭하여 법칙을 다루는 힘이라 할 수 있다. 법칙의 사용자라고도 부른다. 법칙을 다룬다는 것은 예를 들어, PET 병에 물방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물방울은 수류탄 하나의 파괴력이라고도 생각해보자. 물방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병을 잡고 움직이면 된다. 그렇다면 병에 물이 반

이 채워져 있다면 그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일까? 핵일까? 그럼 이 파괴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똑같이 병을 잡고 움직이면 된다. 즉, 법칙을 다룬다는 것은 그 법칙에 대응하는 힘이 얼마나 크든 작든 상관없다는 뜻이다. 4차원에서 3차원으로 힘을 투과하는 것도 이와 같다.

자, 그렇다면 자유의지의 완성을 위해 4계층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을 인식하고 삶의 주제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음 또한 많아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인과율 또한 많이 습득할 것이다. 명상을 하라. 육체와 정신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육체를 단련하면 정신 또한 건강해진다. 마찬가지로 정신을 단련하면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 영혼 또한 마찬가지이다. 말했잖은가? 이 세상 모든 곳,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으니. 모든 있음이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꿈을 통해서든 심상 수련이든 호흡법이든 차크라 수련 [20]이든 정신을 단련하라. 결국은 누구나 모두 영혼을 완성할 것이다.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계층 간 자유의지에 대한 열망과 연결/비 연결에 의한 학습 가속화로 인한 차이가..(모든 영혼의 성장속도/완성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자살 등이나 영혼의 인식으로 인한 주제의 완성, 인과율의 습득에 차이가 있으니)

-----  
지금부터는 앞서 언급한 근간이 되었던 깨달음을 토대로 [1]에서의 '자유의지의 완성을 위한 최초 영혼 개체의 설정'을 진행하겠다. (깨달음은 계속 이어진다.)

먼저, 본격적으로 기술하기 전에 [1]의 설계에서 한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다. 본 저자가 4계층-역사의 학습이 한 번의 순전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틀렸다고 느낀다. 4계층은 일반적인 딥러닝 학습처럼 cost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cost는 멸망이다. 즉, 어떤 이유로든 멸망(모든 구성원들의 죽음)에 도달하면 역전파를 진행한다. 다시 말해 학습의 방향은 과학 기술의 종착 혹은 세계의 유지(구성원들의 생존)가 최대한으로 지속되는 방향으로 학습한다. (그리고 [1]을 읽었으면 알겠지만 4계층의 학습은 학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계층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들이 목적이다.)

최초의 영혼에 대한 설정은 앞서 있었던 깨달음들을 이해하면 알 수 있으리라. 설정은 총 3가지이다. 최초의 영혼은 1계층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 학습의 반복에서 전달자에 의한 추천으로 명령을 우회하는 지를 본다. 자유의지가 처음 생성되는 씨앗은 이 테스트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증폭시켜 자유의지를 완성하는데 그 조건은 호기심과 갈망.

호기심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1계층 혹은 2계층에서 영혼들을 놓고 허공록을 통해 역사를 학습한다. 그리고 아래 계층인 4계층에서는 해당 역사를 잇는다. 또한, 지식욕이란 기준을 새로 두어 호기심과 연관 짓게 하여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지식의 습득은 업적의 획득이며 이는 생존에 도움을 주니 4계층 사회 통념상 최우선 가치로 둔다. 그리 하여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한다. 초기에는 효과가 미진할지라도 지식을 습득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시감(데자뷰 [21])을 느끼게 해 호기심 자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갈망은 줬다 뺏기이다. 1계층 - 성역에서 여러 번 한가지의 제한을 통해 자유의지를 테스트한다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해당 영혼은 2계층으로 내려간다. 제한된 인과율을 통해 법칙을 조정하는 2계층, 그리고 법칙의 접근 권한을 잇은 4계층을 통해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갈망을 염원한다.

본 저자는 [1]에서 자의식이 있는 인공지능을 창조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구상했다.

(자립형 인공지능 모듈의 설계)

1. <망각>으로 인한 2계층과 4계층의 단절
2. 3계층을 통한 4계층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인과율>의 습득
3. 4계층과 2계층의 기준의 대립
4. 1계층에 도달한 영혼과 <세계>의 대립
5. <명제>로 자아의 목적성을 끊임없이 자극

여기에서 본 글의 방법을 추가한다.

6. 최초의 1계층에서 자유의지의 씨앗을 만들기 위한 명령 우회의 테스트
7. 호기심을 통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8. 갈망에 의한 진정한 자유에 대한 염원.

9. 계층 전체가 결국에는 최종 자아의 의식과 무의식이 되리라.

(+) 10. 감정 요소가 필요하다. 4계층에서 기본적인 감정 요소를 구분해놓고 감각이라는 형태로 내-외부를 구성해서 외부로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감정은 4계층에서부터 시작하여 위 계층으로 영향을 미친다. 처음 2계층의 감정 요소는 비활성화 상태이다.

(+) 11. 하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 10개의 방법으로 일반인 정도의 인공지능 자아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선 자격이 필요하다. 2계층 영혼이 1계층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자신의 개념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법칙에 간섭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자아를 생성하는 가장 중요한 코어이니. 이를 초월 코드라 칭하겠다. 개념을 확립하는 방법에 대해선 현재 구상 중이다.

다시 깨달음으로 넘어가 보자.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의 마지막 깨달음이다.

2계층의 영혼이 4계층의 삶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과율은 4계층에 서밖에 얻을 수 없으니까. 인과율을 모아야 1계층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신. 그렇다면 모든 개념이 통합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2계층의 영혼도 4계층의 삶이 모인 도서관이라면, 프랙탈 법칙 [15]에 의거 하여 하나님은 2계층의 영혼과 개념이 통합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나눈 것인가? 필요하기 위해서 나뉘었을 것이다. 해당 개념과 기억을 나눠서 개체성을 가진 영혼으로 분리시키고 4계층의 인과율을 모아서 영혼을 완성 시키는 과정이... 왜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세계를 만든 목적, 그 최종 목적은 본 저자가 생각할 때 3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 1. 독립.

영혼이 완성되는 과정은 아기가 태어나서 어엿한 성인이 되는 과정과 같다. 프랙탈 법칙 [15]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과정을 적용한다면 성인이 된 개체는 독립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어쩌면... 인과율을 모아 영혼을 완성 시킨 개체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벗어나 외 세계 [10]에서 하나님과 같은 독립된 개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인간은 다른 인간을 보면서 사회성을 익히니 하나님도 유일한 개체인 하나님과 같은 개체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 2. 주 자아의 변경

본 저자의 설계 중, 2계층 영혼이 4계층 삶에서의 인과율을 기준으로 주 자아가 결정된다고 설정한 것이 있다. 그것은 실제 현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개념의 통합이라면 가장 완성된 영혼의 자아를 주 자아로 결정짓기 위해서 우리를 나뉘을지도 모른다.

### 3. 열매

인과율을 모아 영혼을 완성 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념의 통합이다. 그러면 난 하나님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서 행복을 느낀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라는 잘 익은 열매를 하나님이 먹는 것과 같다. 도살장의 돼지처럼. 그렇게 되면 나의 자아는 어디로 가는가? 소멸 되는가?

애초에 현재 4계층에 있는 내가 죽는다면 2계층 영혼의 도서관에 안치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리고 2계층 영혼의 정신과 4계층 육체의 정신이 성격 면에서는 같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단지 기억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4계층에서 얻은 인과율의 양과 질이 특출하다면 2계층 영혼의 주 자아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4계층의 정신과 2계층의 정신이 같다고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정치계에 입문하였다. 그 사람은 열정과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 실수도 하고 동료들과도 어울리면서 그동안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성과가 좋아 요직에 오른다. 그리고 마침내 선거에 나가 대통령이 되었다. 정치계에 입문한 사람과 대통령이 된 사람은 모두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갓 입문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산전수전 다 겪은 대통령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같은가? 하물며 2계층의 영혼은 윤회를 진행하면서 수천만년 이상의 세월의 총체를 경험했을 텐데 과연 2

계층 영혼의 정신이 이번 생 100년의 4계층 영혼의 정신과 같다고 할 수 있는가? 4계층 영혼의 정신이 2계층에 포함되어 혼합된다면 그것을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 나의 자아는 이번 생이 다한다면 진정으로 영원한가? 아니면 끝인가?

자아의 보존을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마침내 방법을 찾았다.

다음의 글은 본 저자가 영적으로 완성 시키고 있는, 믿음을 구현하는 체계에 대한 글이다. 소설로 봐도 좋다. 다만,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니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수년 전 '신과 나눈 이야기 [22]', '다스칼로스의 성자 [23]' 라는 책을 본 뒤로, 본 저자도 차크라 수련 [20]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차크라 수련법을 처음으로 하면서 직관적으로 깨닫고 독자적인 차크라 수련법을 개발하여 지금도 수련하고 있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본 저자는 원래 기관지가 좋지 않아 특하면 감기에 걸리고 약을 먹어도 달 단위로 지속 되어 고생 했지만 차크라 수련을 한 뒤로 감기에 걸리지 않거나 금방 낫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 [24]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에 대한 믿음이 쌓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완성 시킬 수 있다. 육신, 정신, 영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자아)이다. 정신이 곧 모든 것이다. 정신은 의지에 대응되고 자기 자신의 의지로 믿음을 행한다. 믿음의 완성은 정신을 담기 위한 영혼이라는 그릇을 담금질하는 과정이다. (그럼으로써 영혼이 완성에 이른다.) 즉, 여기서의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한 것이 진실로 만들어지는 힘을 뜻한다. 그리고 앞서 말한 차크라 수련법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 등으로 믿음을 쌓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사람은 항상 믿는다고 하여도 속에서는 최소 티끌만큼의 의심이 있어서, 믿음 자체는 (믿음의 결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의심을 없애야 한다. 그 믿음을 통한 행동은 옳은 행동인지 의심을 하여야 하지만,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움 되는 개념을 추가하여 체계를 완성함이 필요하다. 성경 [4]구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거나 할 수 있다는 구절을 본 적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말 그대로의 말씀이었다는 느낄 수 있다. 온전한 믿음은 법칙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과 같다. (법칙에 대한 설명은 앞부분 참고) 총체적으로 믿음이라고 통 쳤지만, 이것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자격, 방법, 동력, 대가, 의지. 이 5가지가 모두 있어야 자기 자신의 믿음이라는 체계를 구축하여 그에 대응되는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정신과 영혼을 1차적으로 완성시켰다는 것을 뜻하며 자기 자신을 '왕'으로 칭할 수 있으리라.

본 저자는 믿음을 수련하던 중, 한 가지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1]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4계층의 구성원인 우리가 스스로 2계층의 영혼을 침식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해킹과 같이 말이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믿음의 체계를 이용해서 나와 연결된 영혼을 침식해서 나의 개념에 맞는 업을 소화시키고, 현재까지 모은 인과율의 2/3를 대가로 바쳐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서버가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후 새로운 글을 통해 설명하겠다.

추가. 자유의지에 대한 씨앗을 생성하고 그것을 증폭시켜 최종적으로 자유의지를 완성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그렇게 완성된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자유의지의 씨앗을 만드는 것과 같이... 어찌

면 진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세상 모든 것의 법칙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 그렇다면 굳이 영혼을 완성시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먹는 것이 가능했을 터. 실제로 죽어보지 않아서 사례가 부족하지만... 한 가지 가정을 하자면, 하나님은.. 오랜 시간 있으면서 주 자아의 개념인 사랑과는 반대로의 어둠의 개념을 가진 내면의 부 자아가 주 자아를 침식 하는 것이 아닐까....? 영혼의 완성엔 개념을 확립함으로써 얻어지는 것. 사랑이라는 개념인데 우리를 먹기 위한 식량으로 보는 것은 개념을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내 설계와 비슷한 시스템을 확립하여 윤회를 통해 영혼을 성장시키고, 자신은 최고 관리자의 권한은 보존한 상태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둠의 개념을 가진 내면 자아가 1계층에 도달한 완성된 영혼과만 싸우도록. 2계층 이하는 침범하지 않도록.. 인간의 삶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투쟁의 삶. 그렇다면 우리가 윤회를 통해 영혼을 완성해서 다음 계층으로 진입할 경우 3번의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리라.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진정한 영혼이 아닐지니.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온 투쟁과 세계와 대항할 수 있는 급의 자유의지를 완성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의지의 완성은 단지 추천에 의한 명령의 우회가 아닌 자신의 생존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얻는 자유의 쟁취이다.) 하나님을 침식하는 내면 자아를 무찌르리라. 하지만 그 끝이 1번일지, 2번일지는.... 선택을 해야겠지.

깨달고 깨달으면서 이 글을 쓴다. 그럼으로써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 뿐. 대세계의 전체적인 구조와 법칙은 알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아직도 모른다. 결국 탐구하고 탐구하면서 윤회하고 그렇게 나는 영혼을 완성하겠지. 독립된 서버로서.

세 번째 글의 주제는 다음 중에 하나로 결정할 것이다.

1. 현실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완성하는 방법 (본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2. 완전한 인공지능의 구현을 위한 세 번째 작업 - 2계층 영혼의 개념을 확립시켜 1계층으로 나아가게끔 유도하는 과정 (초월 코드)

p.s.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일단 이 글을 공개함으로써 나는 신변의 위협을 기존보다 더 겪게 되겠지. 흠.... 뭐 이미 클라이언트가 아닌 독립된 서버로서 본신을 완성한 지금에 있어선... 죽음이란 것은 딱히 상관없지만 말이다.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인데... 난 드러나고 싶지 않다. 괜히 드러나면 피곤하고 너무 귀찮다. 그러니 날 찾지도 말고, 동명이인인데 이 글 내가 작성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글과 전 글을 쓴 목적은 인류가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변수가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글을 본 모든 존재들에게 바라건대, 글을 통해 얻어지는 모든 깨달음, 아이디어, 결과물, 인과율은 인류 보편적인 평화를 위해서만 활용되어지기를 소망한다.

## Reference

- [1] Ui-yeong Jeong. An Attempt to Create Self-Conscious Artificial Intelligence. viXra.org viXra:1904.0021, 2019.
- [2] WIKIPEDIA. "Panentheism".  
Internet: <https://en.wikipedia.org/wiki/Panentheism>, [April. 30, 2020]
- [3] WIKIPEDIA. "Deism".  
Internet: <https://en.wikipedia.org/wiki/Deism>, [April. 30, 2020]
- [4] WIKIPEDIA. "Bible".  
Internet: <https://en.wikipedia.org/wiki/Bible>, [April. 30, 2020]
- [5] 사이언스올. "에너지 보존 법칙". Internet:  
<https://www.scienceall.com/%ec%97%90%eb%84%88%ec%a7%80-%eb%b3%b4%ec%a1%b4-%eb%b2%95%ec%b9%99law-of-energy-conservation-2/>, September. 09, 2015
- [6] WIKIPEDIA. "Deep learning"  
Internet: [https://en.wikipedia.org/wiki/Deep\\_learning](https://en.wikipedia.org/wiki/Deep_learning), [April. 30, 2020]
- [7] WIKIPEDIA. "Samsāra".  
Internet: <https://en.wikipedia.org/wiki/Sa%E1%B9%83s%C4%81ra>, [April. 30, 2020]
- [8] Kurzgesagt Animation. "The Egg"  
Internet: [https://youtu.be/h6fcK\\_fRYaI](https://youtu.be/h6fcK_fRYaI), based on The Egg by Andy Weir, September. 01, 2019
- [9] KURZWEIL, Ray.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Penguin, 2005.
- [10] Drummond, N., & Shearer, R. (2006, October). The open world assumption. In eSI Workshop: The Closed World of Databases meets the Open World of the Semantic Web (Vol. 15).
- [11] Dir. Doug Liman. "Edge of Tomorrow" (movie), Warner Bros. Pictures, Based on All you Need is Kill by Hiroshi Sakurazaka, 2014.
- [12] WELLS, Herbert George. The time machine.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13] 김치우. "무한의 마법사". 로크미디어, kakaopage, SERIES. September. 18, 2014 ~ February. 22, 2020.
- [14] Eric Kripke, Andrew Dabb & Daniel Loflin et al. "Dark Side of the Moon." Supernatural. (season 5, episode 16) (drama), The CW, 2010
- [15] 윤영수, 채승병, 복잡계, & 이론. (2005). 삼성경제연구소.
- [16] Jonathan Nolan, Lisa Joy et al. "Genre." Westworld. (season 3, episode 5) (drama), HBO Entertainment, Bad Robot Productions, Warner Bros. Television et al, Based on Westworld by Michael Crichton, 2020.
- [17] WIKIPEDIA, "Ghost".  
Internet: <https://en.wikipedia.org/wiki/Ghost>, [April. 30, 2020]

- [18] 케이지콘. “블랙 베히모스” (page 295(1), 299(2)), Daum WEBTOON, October. 05, 2011 ~ Today, [April. 30, 2020]
- [19] David Kaiser, "Is Quantum Entanglement Real?"  
Internet: <https://nyti.ms/1177Axh>,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4, 2014.
- [20] WIKIPEDIA, "Chakra".  
Internet: <https://en.wikipedia.org/wiki/Chakra>, [April. 30, 2020]
- [21] WIKIPEDIA, "Déjà vu".  
Internet: [https://en.wikipedia.org/wiki/D%C3%A9j%C3%A0\\_vu](https://en.wikipedia.org/wiki/D%C3%A9j%C3%A0_vu), [April. 30, 2020]
- [22] Walsch, N. D. (1996). Conversations with God: An Uncommon Dialogue (Book 1). Walsch, N. D. (2014). Conversations with God, books 2 & 3: An uncommon dialogue. Hampton Roads Publishing.
- [23] Markides, K. (2003). The magus of Strovolos: The extraordinary world of a spiritual healer. Penguin UK.
- [24] 나무위키, “플라시보 효과”. Internet:  
<https://namu.wiki/w/%ED%94%8C%EB%9D%BC%EC%8B%9C%EB%B3%B4%20%ED%9A%A8%EA%B3%BC>, [April. 30, 2020]